

운주사 선학총서 시리즈 첫권

'불교와 유학' 번역 출간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어 기존 의 전통 사상 및 문화 등과 대립 융합하는 과정과 선불교의 특색 등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선학총서 시리즈가 나온다.

운주사는 선학총서 시리즈 첫 번째 권으로 남경대학 라이용하이(賴永海)교수의 <불교와 유학>을 번역, 출간했다.

총서 전체의 개괄서인 성격이 지닌 이 책은 불교사상과 유교학설의 상호관계를 계통적으로 논했다. 사유양식과 사상, 학설의 특징, 이론 취지 등의 측면에서 불교와 유교의 동이(同異), 서로 간의 영향과 침투 등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달한 유학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어떤 방면에서 중국의 유학에 영향을 끼쳤을까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불교와 유학의 관계를 공정하고 정확한 관점과 논리로 사상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운주사는 <선학과 현학>, <선과 노장>, <선과 예술>, <선과 시학>, <여래선>, <조사선>, <분등선> 등 전 7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선학 총서 시리즈는 중국의 전통사상과 불교와의 관계,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인 중국선학을 다루고 있다. <값 1만2천원>

한국 선불교 내면까지 통찰

버스웰교수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송광사 생활 등 개인적 경험 바탕 선방예절·고행법 등 자세히 기록

"불교학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스님들이 하는 말과 글로써 한국 불교 특징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UCLA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로 한국 불교와 중국 불교를 연구하고 있는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최근 우리말로 번역된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김종명 옮김·예문서원)에서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묘사한다.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이 책은 지난 74년부터 79년까지 저자가 승려로써 5년간 지낸 송광사 스님들을 비롯 우리나라 선승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또 선승으로서 체험과 우리나라 승가 제도에 대한 내용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선승들의 생활상은 물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송보종찰 송광사란 모델을 통해 한국선불교의 특징을 서양인들에게 전하는 한국선불교의 종합보고서인 셈이다.

저자는 "어떻게 실천적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김장만들기, 매주만들기 등 절에서 식생활 해결방법에 관한 부분과 선방 일과표, 선방예절, 선방규정, 고행법 등 선방 생활은 물론 이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 절에서 이탈하는 스와의 이야기까지 자세히 적고 있다. 또 은사 구산스님의 수행기와 열반에 들 때의 상황 등 구산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에서 각별한 사제 간의 애정이 엿볼 수 있다.

70년대 우리나라 승가생활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개인적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절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선 수행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이 논리적으로 전개돼, 저자의 필력도 돋보인다.

한국의 초기 불교 등 현대 불교의 현황까지도 수록해 사료적 학술적 가치로서뿐 아니라 한국 불교를 전세계에 알리는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양에 한국 불교 현대사를 조명한 서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 스님들과 미국의 자연사박물관 캔달박사 등 저명한 학자들의 자문과 비평과정을 거쳐 출간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선가의 단상들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불교의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책이라고 논평한 이 책은 서양인들이 영어로 읽을 만한 한국 불교 서적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동양학 관련 학자들과 독자들에게는 유익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책은 부록으로 한국의 절에서 중요시 되는 염불문을 수록했으며, 참고문헌, 주까지 덧붙이는 등 한국 불교에 대한 깊은 시각에서 서양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파란눈의 선승이 참여하면서 관찰자의 시각에서 포착, 한국 불교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보아 넘긴 절 생활과 수행생활의 사소한 면면까지 기록하고 있어 선불교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저자 로버트 버스웰은 "현대 한국 선승들의 승가생활은 서양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불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는 값진 모델이 된다"고 한국 불교를 평가했다. <예문서원, 값 1만원>

로 전개돼, 저자의 필력도 돋보인다. 한국의 초기 불교 등 현대 불교의 현황까지도 수록해 사료적 학술적 가치로서뿐 아니라 한국 불교를 전세계에 알리는데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양에 한국 불교 현대사를 조명한 서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 스님들과 미국의 자연사박물관 캔달박사 등 저명한 학자들의 자문과 비평과정을 거쳐 출간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선가의 단상들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불교의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책이라고 논평한 이 책은 서양인들이 영어로 읽을 만한 한국 불교 서적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동양학 관련 학자들과 독자들에게는 유익한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책은 부록으로 한국의 절에서 중요시 되는 염불문을 수록했으며, 참고문헌, 주까지 덧붙이는 등 한국 불교에 대한 깊은 시각에서 서양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파란눈의 선승이 참여하면서 관찰자의 시각에서 포착, 한국 불교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보아 넘긴 절 생활과 수행생활의 사소한 면면까지 기록하고 있어 선불교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저자 로버트 버스웰은 "현대 한국 선승들의 승가생활은 서양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불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새롭게 재해석 할 수 있는 값진 모델이 된다"고 한국 불교를 평가했다. <예문서원, 값 1만원>

김종명 기자 (gamja@buddhapia.com)



▽부모님을 제의하고 구산스님을 삶에 깊은 영향을 준 스님이었던 버스웰교수는 송광사 수행시절 은사 구산스님을 자주 만나 법을 청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10 Buddhist books including '산에는 꽃이 피네(소)',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불교입문', etc.

구입문의: (02)737-0695

일상의 소식 그림으로 글로

수안스님 '참 좋다, 정말 좋구나'

선화의 독특한 경지를 개척한 수안스님이 첫 에세이집 <참 좋다, 정말 좋구나>(늘푸른소나무)를 펴냈다.



에세이집은 30여년동안 구도 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 50여편을 모았다. 밝은 수채화풍의 그림 60여점도 곁들여 재미를 더한다.

스님에게 수표를 전해 주기 위해 악수를 청한 순박한 할머니, 종이 위에 물감을 쏟은 철부지 꼬마에게 오히려 그림을 그려주는 스님, 동양의 그림을 배우기 위해 측사암에 찾아 온 서양 화가에게 오직 '딱이나 같아'고 가르친 얘기 등이 들끓는 촌부들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자비가 물씬 풍긴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개구쟁이 스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채워진 스님의 글은 마치 선화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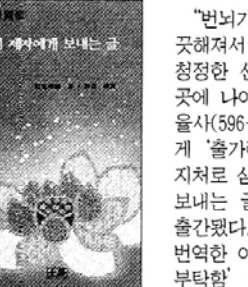
기도생활과 예술활동을 위해 서는 아무리 낯설고 험한 곳이라고 꼭 찾아가고야 마는 수안

스님만의 치열함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한 만큼 순수한 내면의 세계도 엿볼 수 있다. 누구 나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예외 소드가 단순한 재미를 떠나 삶의 지혜와 함께 진한 여운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전람회장을 찾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평평고, 승복의 소매를 뜯어가는데도 새의 따듯한 동지를 위해 기도하는 스님의 인생이야기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값 8천5백원>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글

중국 도선율사의 '출가란 무엇인가'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글

"번뇌가 점점 소멸하면 마음도 밝고 깨끗해져서 선정과 지혜가 생겨나고 대승의 청정함 신심을 일으키니 보리종성이 사는 곳에 나아가게 된다." 중국 남산율종 도선율사(596-667)가 말년에 제자 자인스님에게 '출가란 무엇인가'를 되새겨 공부의 의지처로 삼도록 당부하는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글(淨心誠觀法)>이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다. 송광사 강원 강주 지운스님이 번역한 이 책은 '수행하고 받아 지니기를 부탁함' 등 35편으로 수행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지침서다. <토방, 값 8천5백원>

선에서 배우는 경영

경영에 부처님법 응용 실천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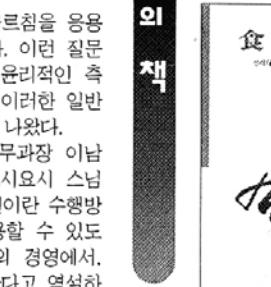


선에서 배우는 경영

경영자가 경영에 종교의 가르침을 응용하고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대부분 종교의 윤리적인 측면만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지침서가 나왔다. 前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총무과장 이남재씨가 번역한 일본 구보 토시오시 스님의 <선에서 배우는 경영>은 선이란 수행방법을 경영에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책은 물질의 경영에서, 마음의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래, 5천원>

식선식오

27가지 음식에 얽힌 108번뇌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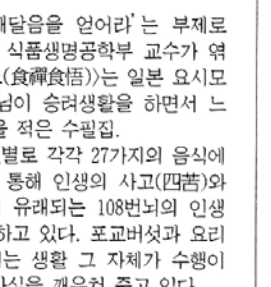


식선식오

'선식으로 깨달음을 얻어라'는 부제로 최진호 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가 엮어낸 <식선식오(食禪食悟)>는 일본 요시모토 조오호우스님이 승려생활을 하면서 느낀, 생활 단편을 엮은 수필집. 이 책은 계절별로 각각 27가지의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사고(四苦)와 팔고(八苦)에서 유래되는 108번뇌의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포교버섯과 요리주임스님편에서는 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며, 선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다. <불교문화사, 값 7천원>

최진호 엮음

글로벌 워크



글로벌 워크

글로벌 워크= 경제 활동의 글로벌 발화는 우리 사회를 규정 짓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 중 하나이다. 글로벌 사회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 메리오하라 드브로 하와이 대학 교수. 전기정·이왕재 옮김. <한국언론사료간행회, 값 1만8천원>

Large advertisement for '佛敎大辭典' (Buddhist Encyclopedia). Features text in Korean and large vertical Chinese characters. Includes details about the dictionary's scope, number of volumes, and price.